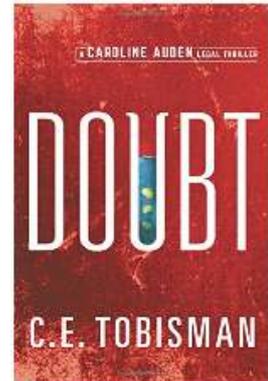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DOUBT
가제 : 의혹
저자 : C. E. Tobisma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8월 1일
분량 : 346 페이지
장르 : 소설



아마존 킨들 유료 도서 베스트셀러 2위,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조계의 루키 캐롤라인 오든 법대를 갓 졸업한 캐롤라인 오든. 함께 공부한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어려운 공부를 무사히 마친 캐롤라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로 꼽히는 법률회사에 자리를 얻는다. 졸업하자마자 찾아온 이 운 좋은 기회는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다 잊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굴곡 많았던 캐롤라인의 지난 삶처럼, 창창할 줄만 알았던 변호사 생활 역시 첫 발을 내민 직후부터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사실 캐롤라인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유능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웹사이트를 해킹해온 덕분인지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던 엔지니어가 되었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데이터를 해킹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출소 후 아버지는 캐롤라인의 엄마와 이혼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 코네티컷으로 가서 재혼을 했다. 아버지처럼 캐롤라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해커 생활을 청산하고 법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법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입사를 꿈꾸는 법률회사의 대표 루이스 스텐이 강사와 학생으로 맺은 인연을 토대로 캐롤라인에게 졸업 후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라는 뜻밖의 제안을 한 것이다.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캐롤라인은 기분 좋게 힘찬 새 출발을 꿈꾼다. 입사 후 루이스 스텐이 그녀에게 할당한 첫 업무는 집단 소송사건. 생명공학 업체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대두를 먹고 갑작스럽게 신부전이 발생하여 증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다. 문제의 콩을 먹기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문제는 유전자 변형 대두가 신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혹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재판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이 짧

은 시간 안에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소송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다.

답이 정해진 싸움, 거대 기업과의 힘겨운 투쟁,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는 정의의 힘

캐롤라인은 처음 할당된 사건인 만큼 최선을 다해 파헤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데 까지 조사를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이 패소되었다는 보고서를 올리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유명한 과학자가 수상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캐롤라인이 맡은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연구결과, 실험이 완료되고도 공개되지 않은 논문, 살인, 질은 베일에 싸인 거대 기업의 실체... 어릴 때부터 발휘해온 특별한 스킬, 가려진 정보를 파헤쳐 끝까지 캐내는 기술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음모가 있다는 직관으로, 캐롤라인은 이 모든 사태는 부당한 힘이 개입된 결과라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유전자 변형 대두에 관한 진실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이지만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고, 정신 없이 흘러만 간다. 루이스 스텐은 왜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신인 변호사인 캐롤라인에게 맡겼을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캐롤라인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그 끔찍 숨겨온 해커의 능력을 활용해야만 할까? 캐롤라인의 선택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

고된 삶을 이어온 캐롤라인이 법조계에 당찬 신인으로 첫 발을 들이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싸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캐롤라인 오튼’ 시리즈 그 첫 번째 소설로,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되어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유료 전자책 2위에 올랐다. 시리즈 2권 『Proof』 역시 2017년 6월에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C. E. 토비스먼(C. E. Tobisman)은 15년간 항소심 판사로 일하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했다. UC 버클리 법대를 졸업했으며, 위 소설은 작가로서 처음 완성한 데뷔작이다.

제목 : THE HEAVENLY TABLE

가제 : 천국의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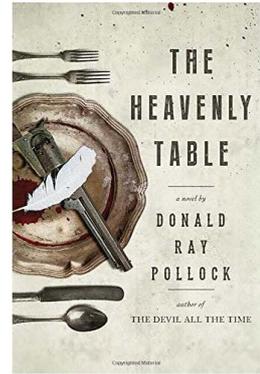
저자 : Donald Ray Pollock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6년 7월 12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작가가 두 번째로 완성한 어두운 폭력성과 풍자, 위트의 결합

아들만 셋 낳은 펄 주잇은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집까지 잃고 만다. 포악한 땅 주인 밑에서 소작농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펄을 견디게 한 건 독실한 신앙심이었다. 케인, 콤, 침니 세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모진 가난과 설 새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아이들을 깨웠다. 사람보다 동물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 듯한 아버지의 사납고 거친 음성을 들으며, 아이들은 방이 한 칸밖에 없는 헛간에서 눈을 뜨고 전날 지독한 발일로 흘린 땀이 채 마르지도 않은 더러운 옷을 걸쳤다. 아직 달이 떠 있는 컴컴한 새벽, 네 사람은 일어서면 머리가 달을 정도로 천장이 낮은 좁은 방 중앙에 둘러 앉아 끼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음식으로 아침을 때웠다.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몸이 으스러져라 일해도 탐욕스러운 땅 주인은 아버지와 아이들을 더 부러먹을 생각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펄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승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을수록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식탁’에 앉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어느 은둔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것이다. 펄은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을 강요하며, 거지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자초했다. 상황이 나쁠수록 사후의 삶에는 더 좋다는 그 믿음이 세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1917년, 펄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토록 바라던 ‘천국의 식탁’으로 가버리자, 세 아이들을 겨우 붙들고 있던 삶의 기둥도 사라져버렸다. 안내자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롤 모델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택한 대상은 싸구려 삼류소설의 주인공 ‘블러디 빌 버킷’. 거칠 것 없는 빌 버킷 처럼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앞을 가로 막는 건 다 없애버리면서 이 더럽고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자고 결심한 셋은 강도와 살인도 서슴지 않는 흉악한 범죄자로 변해버린다. 먼저 땅 주인부터 죽이고, 총과 말을 훔쳐서 지긋지긋한 조지아를 떠난 세 사람은 목적지를 캐나다로 정하고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 도착하면 ‘제대로 된’ 새 인생을 시작하자고 다짐했지만, 가는 내내 온갖 범죄를 저지른 바람에 오하이오 남부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세 사람의 목에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제2차 대전과 급격한 시대 변화에 휩쓸린 사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젊은이와 노인들

셋 중에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스물세 살 장남 케인과 그와 정반대로 땅딸막한 체구에 행동도 느릿느릿한 둘째 콧, 깡마르고 성질이 불같이 급한 막내 찰니, 세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하이오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 세 사람은 엘스워스와 올라 부부의 농가에서 며칠 신세를 진다. 그런데 이들의 우연한 만남은, 모두의 삶에 예기치 못한 파란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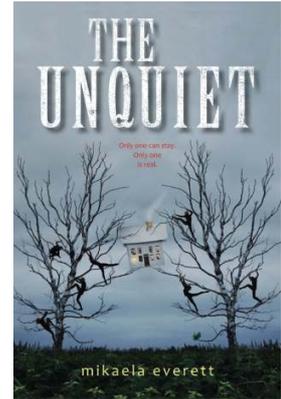
노 부부 엘스워스와 올라는 잠시 집을 떠난 방탕한 아들 에디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나갈 군인으로 징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부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자동차며 비행기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고 전쟁에도, 농사일에도 사람의 노동력 대신 기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며 엘스워스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의 정신을 속 빼놓는다.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진보’,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결국 엘스워스는 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다. 평생 일군 토지와 힘 없는 몸을 누일 집 한 채까지 다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한 세 형제가 찾아온 것이다.

플래너리 오코너와 코맥 맥카시의 음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그대로 이으면서도, 비행기를 총으로 격추시키는 등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은 세 형제의 무모한 행동은 쿠엔틴 타란티노와 코엔 형제의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주잇 형제와 노부부가 서로에게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그들 각자에게는 희망이지만 더 없이 끔찍한 욕망일 뿐이다. 미국이 제2차 대전에 개입하기 시작한 변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자동화된 기계와 전기가 서서히 보편화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로움과 혼란을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는 이야기는 독자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한다. 잔인한 폭력성과 강한 위트가 절묘하게 섞인 놀라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도널드 레이 폴락(Donald Ray Pollock)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제지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소설 『The Devil All the Time(국내 번역서 제목: 악마는 죽지 않는다)』와 단편 모음집 『Knockemstiff』를 발표하여 큰 화제를 낳았다.

제목 : THE UNQUIET
가제 : 불안
저자 : Mikaela Everett
출판사: Jove
발행일: 2011년 9월 27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사람도, 도시도, 돌맹이 하나까지 똑같이 존재하는 두 개의 지구, 조용히 시작된 한 쪽의 멸망

예닐곱 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 한 무리가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에 조용히 도착했다. 아무도 모르게 지하 벙커에 들어간 아이들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갇혀 살면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일정 에 따라 교육을 받고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아이들로 성장했다. 여덟 살쯤 되자, 아이들은 마침내 지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따금씩 오후에 산책을 하거나 정원에 나가 운동도 했다. 마침내 열 살이 지나자 지하 벙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언젠가부터 먹기 시작한 파란색과 흰색 알약은 계속 먹어야 했지만, 그리고 전기 울타리가 둘러쳐진 마당 너머로는 나갈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지하 생활은 끝이 났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사격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을까? 지구와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지구, 쌍둥이 지구에서 온 고아들이었다. 이제 열네 살, 8년째 이 합숙생활을 이어온 리라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우주에서 서로 마주보는 궤도를 따라 돌면서 평화롭게 살아온 두 지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지구의 하늘에 갑자기 피와 연기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두 지구는 크기도, 생김새만 같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았다. 사람도, 도시도, 돌맹이 하나까지 똑같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다른 지구에 사는 자신의 쌍둥이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지구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섬뜩한 일이 벌어졌다. 두 번째 지구에 사는 똑같은 존재들이 하나 둘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명확한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사람들이 사라지자, 두 번째 지구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다. 첫 번째 지구는 일단 두 행상 간의 교신을 일체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자고 제안하고, 두 번째 지구도 일단 이 '사일런스 조약'에 동의한다. 이때부터 두 지구 사이의 교류는 끊어졌지만, 사람들은 두 번째 지구가 우주에서 서서히 멸망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나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두 번째 지구는 극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곧 사라질 지구를 버리고, 살아 남게 될 첫 번째 지구로 옮겨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려면 그 지구에 이미 살고 있는 쌍둥이들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리라엘을 비롯한 어린 아이들은 바로 그 무서운 임무를 안고 첫 번째 지구로 파견된 일종의 전사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일 때부터, 아이들은 최정예 스파이로 키워진 것이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지구에서 태어나 전사로 자란 아이들, 이들에게 주어진 잔인한 임무

리라엘은 두 번째 지구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 치밀하고 방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팔려갔다. 리라엘처럼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온 아이들은 첫 번째 지구의 프랑스 외곽, 어느 시골 마을에 마련된 지하 벙커에 모여 지내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태어난 환경이 달라서 특별한 약을 계속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첫 번째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쌍둥이를 찾아서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린 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다가, 두 번째 지구의 침략 전쟁이 시작되면 일제히 전사로 나서서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대체할 쌍둥이의 삶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공부하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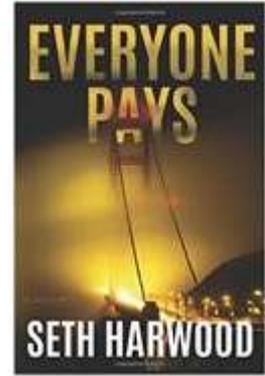
마침내 모든 훈련과 교육을 마친 리라엘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또 다른 리라엘을 찾아간다. 훈련 받은 대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리라엘을 없애버린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은 리라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족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동생이라는 존재는 리라엘에게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새로운 애정을 샘솟게 만들었다. 그러나 침투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리라엘에게 은밀하게 지령을 보내고, 밤이 되면 자신처럼 곳곳에 잠입한 두 번째 지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거나 전쟁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지구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동안 가족들을 향한 리라엘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간다. 과연 두 번째 지구가 계획한 전쟁은 성공적으로 끝날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딸로, 손녀로, 언니로 철썩같이 믿고 있는 가족들을 직접 죽여야 하는데, 리라엘은 그럴 수 있을까?

지구가 두 개라는 독특한 설정을 토대로, 어떠한 가치관도 자리 잡기 전에 전사가 되어야 했던 어린 소녀가 여과 없이 받아들인 자신의 모습과 깨어나지 못했을 뿐 자신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던 본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미카엘라 에버릿(Mikaela Everett)은 아프리카부터 호주까지 전 세계를 돌며 여행을 하다가 현재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살고 있다.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2011년에 졸업했다. 위 소설은 데뷔작이다.

제목 : EVERYONE PAYS
가제 :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저자 : Seth Harwood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4월 26일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소설



샌프란시스코 곳곳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남자들, 악마를 직접 처단하러 나선 남자 “제이 파이퍼”. 마이클은 그를 첫 번째 표적으로 정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에밀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이클이 찾는 표적이었다. 1월의 어느 추운 밤, 마침내 마이클은 에밀리의 과거를 살살이 뒤져서 찾아낸 그 남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인기척이 없는 빈집에 조용히 들어가, 돈 냄새가 풀풀 풍기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가족과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실내가 너무 역겨웠다. 하지만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이클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기 전, 마이클은 곤히잠든 에밀리의 몸 곳곳에 남겨진 상처를 보았다. 상처의 위치며, 형태로 그녀가 무슨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제이 파이퍼의 침실은 커다란 아파트 끝에 있었다. 마이클은 조용히 침실에 들어가 이곳 저곳을 살펴보는데, 벽장 안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가득 쌓여 있었다. 마이클은 한 장씩 넘기며, 사진에 담긴 여자들을 눈 여겨 보았다. 에밀리 사진도 있었다. 침실 한 켠에 잠겨 있는 작은 방문이 보이자, 마이클은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어젖힌다. 열린 문 안에는 제이 파이퍼가 사용해온 ‘도구’들이 가득했다. 다양한 굵기의 채찍, 수갑, 여자의 가슴을 조이는 물건, 심지어 작은 칼까지, 에밀리를 보면서 짐작했던 폭력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더욱 생생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이클은 구역질을 참아내며 컴컴한 방안에 몰래 숨어서 집주인을 기다렸다. 동이 막 트려고 할 때쯤, 제이 파이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대에 벌렁 엎드려 눕자마자, 마이클은 조용히 계획한 일을 시작했다. 갈등할 것도 없었다.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서른네 살의 백인 남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다. 살인사건 전문 형사로 첫 발을 디딘 젊은 여 형사, 클라라 도너는 파트너 핸드릭스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끔찍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난도질당한 시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려나간 목, 잘려 있는 왼쪽 발목의 아킬레스 건, 무언가에 맞아 으스러진 얼굴. 정황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의식을 치르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분명했다. 클라라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를 악물었지만, 살해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했던 말, 여자는 살인 사건 형사로 일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돈으로 성을 사는 남자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살인자인가

뉴욕 경찰이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클라라의 우상이었다. 엄마 없이 홀로 꾀꾀하게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보면서 늘 경찰을 꿈꿨던 클라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생각과 달리 살인사건을 전담하는 형사가 되었고, 발령된 직후부터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사실 클라라는 형사가 되기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겉모습에 숨겨진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달아나 뒷골목을 전전하는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고, 자연스레 그 여성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인간이 저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짓,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다 무너뜨린 최악의 일들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두 보았다고 생각했던 클라라에게, 새로이 등장한 연쇄살인범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단번에 입증해 보였다. 그가 만들어놓은 살육의 현장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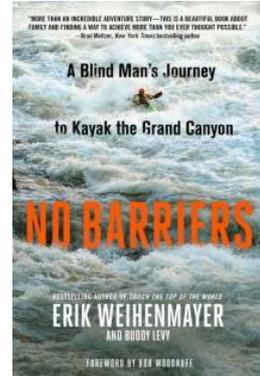
난도질당한 채 발견되는 남성들의 시체가 점점 늘어나자, 살인자의 특징과 범죄의 패턴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체 불명의 살인자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잔인하게 대하고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갖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클라라는 형사로서 범인을 쫓고는 있지만, 살인자가 없앤 남자들은 이 세상에 없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복잡한 심경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클라라는 범인과 또 다른 희생자의 연결고리일지도 모르는 여성을 찾아낸다. 마약에 절어 몸도, 정신도 성한 곳이 없는 그녀를 파헤칠수록, 지금까지 죽어간 남자들과 범인 사이의 관계가 더욱 또렷해지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세스 하우드(Seth Harwood)는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Writers’ Workshop)’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스탠포드와 하버드, 시티 칼리지 오브 샌프란시스코에서 글쓰기를 가르쳤다. 『Broad Daylight』, 『Jack Wakes Up』, 『Young Junius』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다.

NON-FICTION

제목 : NO BARRIERS
가제 : 장벽은 없다
저자 : Erik Weihenmayer
출판사: Thomas Dunne Books
발행일: 2017년 2월 7일
분량 : 56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시각 장애를 딛고 에베레스트 등반에 이어 카약으로 그랜드 캐년을 건넌 한 남자의 도전과 용기

15년 전인 2001년, 시각장애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낳은 인물 에릭 와이헨마이어가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었다. 카약을 타고 그랜드 캐년을 지난 또 한번의 모험은 우리의 삶에 장애물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일 뿐, 실제로 앞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험에 직면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수많은 가능성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더 안전한지 갈등하고 선택하지 않은 쪽을 택했다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느낀다. 문학작품이나 실제 누군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나 문제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방식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에베레스트 등반에 이어 그랜드 캐년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성공리에 마친 저자는 겨우 열다섯 살에 시력을 잃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수없이 많겠지만, 에릭은 “고통을 목적으로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만든다”는 특별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에게 목표를 정한 이상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각을 잃은 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에릭의 탐험은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

“에베레스트가 자네가 이룬 가장 위대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네.” 2001년에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고 내려왔을 때, 그와 함께 했던 탐험대장이 에릭에게 한 말이다. 아직 젊고 수많은 가능성이 놓여 있는 에릭에게 그 말은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다.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만은 등반에 성공하기 전보다 더 열렬히 끓어 올랐다. 2001년 출간되어 55만 부 이상이 판매된 첫 번째 저서 『마음의 눈으로 오르는 나만의 정상(원제: Touch the Top of the World)』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완성한 저서는 카약으로 일군 도전기이자, 지금까지 그가 개인적으로, 혹은 일을 하면서 겪은 무수한 사건을 “장벽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겨낸 과정을 상세히 그린 에세이다. 에릭 뿐만 아니라 당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 실패할 위험이 다분한 일에 뛰어들어 개인적인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며 혁신가, 기술개발자, 예술가, 군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 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몸을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비극적인 일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릴 때면 누구나 깊은 어둠 속에 스스로를 묻어버린다. 에릭은 모두의 내면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힘들 때 꺼질 것처럼 약해질 수는 있지만 스스로가 만든 장벽을 다 허무는 것이 바로 그 빛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 빛이 깜박이는 순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힘든 선택을 하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용기와 대범함을 배울 수 있다.

<목차>

서문

1장. 비전

2장. 꿈이 솟아나는 곳

3장. 눈먼 정상

4장. 연금술

5장. 균형을 잃다

6장. 버킷 챔피언

7장. 길을 이끌다

8장. 나의 사랑, 아니타

9장. 모래 한 알

10장. 식지 않는 모험의 욕구

11장. 아르준의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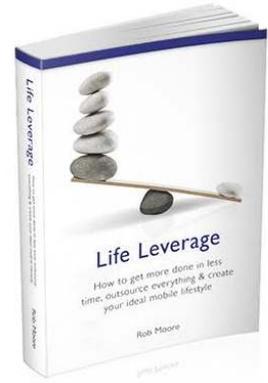
12장. “내 카약이 아니잖아!”

(이하 생략 - 총 2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릭 와이헨마이어(Erik Weihenmayer)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운동선수, 모험가, 강연가로 활동해 왔다. 150명의 산악인들과 함께 세계 7대륙 최고봉 전체를 등반했다. 저서로는 『Touch the Top of the World』, 『The Adversity Advantage』가 있다.

제목 : LIFE LEVERAGE
가제 : 노력보다 지렛대
저자 : Rob Moore
출판사: Progressive Property Ltd
발행일: 2016년 1월 4일
분량 : 285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성공 비법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쌓인 빚이 줄지 않거나, 자신이 바라는 성공가도는 고사하고 자꾸 실패의 길로만 접어드는 것 같을 때가 있다. 하기 싫은 일, 개인적인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참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 대가는 쓰디쓴 허무함뿐일 때가 많다. 시간은 항상 부족한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부분도 늘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저자는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혼란과 좌절, 스트레스 요소를 신속히 몰아내고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삶의 지렛대'를 제안한다. 새로운 철학적 개념이자 혁명이라고 소개하는 '삶의 지렛대'는 일하는 시간과 자유로운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시간은 최소한으로 들여서 최대한의 경제적 수익을 거두고,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참신한 도구이다.

흔히들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접어두고 일에 더 열심히, 남들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성공의 철칙이 된 지 오래다. 저자는 체력이 무시무시하게 좋거나 아주 특별한 기술 혹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프로 운동선수나 의사, 변호사 같은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시간의 고된 노력과 희생이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생각은 다 허구라고 단언한다. 거대한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밝히기 꺼려하는 길, 분명히 존재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 저자는 '인생의 지렛대'를 이해하고 삶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설명한다. 몸을 써서 일해야 하는 산업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저물고, 이제는 정보와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기술의 가장 큰 특성은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가보기는커녕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지구 어딘가의 생산력을 활용하고 한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기계와 무료 와이파이만 있으면 무슨 사업이건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직원이나 창고, 가게 부지를 찾고 마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을 시작하고 수십 억 명의 소비자나 팔로워에게 홍보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com)가 재고품은 단 한 점도 없고, 에어비앤비(AirBnB)가 실제로 소유한 호텔은 하나도 없고, 우버(Uber)가 자동차는 한 대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값아야 하는 대출금이 5만 파운드였던 30대 초반에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백만장자로 성공한 저자는 억누르고 참기만 하는 삶 대신 좋아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비결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책은 개념, 전략, 전술, 청사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며, '인생 지렛대'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사업 설계, 필수 기술, 향후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되는 부분 없이 최대한 활용하여 커다란 성과를 손에 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 '인생의 지렛대'란 무엇인가?
- 성공의 필수요건
- 다윈이 바라본 시간
-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1부. 개념: '시간'과 '일'

- 총 10장으로 구성

2부. 전략: 생각과 실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 총 8장으로 구성

3부. 전술

- 총 4장으로 구성

4부. 청사진

- 총 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롭 무어(Rob Moore)는 사업가이자 투자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산관리, 재무 분야 업체 7곳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Channel 4, BBC의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소개하여 경영과 사업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왔다.

제목 : THE 10 THINGS ALL FUTURE MATHEMATICIANS
AND SCIENTISTS MUST KNOW

가제 :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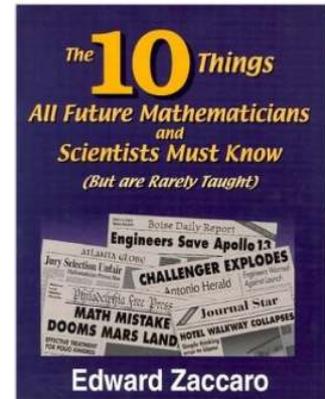
저자 : Edward Zaccaro

출판사: Hickory Grove Press

발행일: 2003년 3월 20일

분량 : 243 페이지

장르 : 과학



인간의 뇌와 오만이 거스른 과학과 수학의 핵심 원칙과 역사적 사건에 담긴 각 원칙의 의미

미국이 1986년에 발사한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는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대원 일곱 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화성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탐사계획도 수 차례 실패의 쓴 맛을 봐야 했다. 1981년, 캔자스시티에서는 하얏트 리젠스 호텔의 2층과 4층 고가 통로가 무너지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고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놀랍게도 수학과 과학이라는 공통분모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계산 실수와 생각의 오류가 빚은 대형 참사와 아찔한 순간들, 이 책은 바로 그와 같은 사고가 남긴 특별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에 과학자나 수학자를 꿈꾸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열 가지를 제시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과 과학은 산술계산이나 명확히 밝혀진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고나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원인에는 의외로 그 단순한 범위를 뛰어넘어, 수학과 과학이 만나는 접점과 일상생활과의 무시 못할 연관성이 드러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50가지 사례를 들어 이 열 가지 개념을 생생하게 설명한다.

과학자와 수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과학과 수학은 진실을 알려준다’는 사실이다. 과학, 수학으로 도출된 결과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해 거칠게 항의하는 선수들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따져 묻는다고 조정이 되거나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 그것이 과학과 수학의 최대 강점이자 핵심이다. 그러나 자명해 보이는 이 특성을 무시할 때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한다.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은 잘 속는다(직관에 어긋나는 사고)’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직관에 맞지 않는 방법들로 가득 채워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뇌는 정확하지 않은 답과 해결방법도 정확하다고 굳게 믿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설은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 이례적인 사태, 이상한 사건을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단순하고 현실과 가까운 가설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개념은, ‘실수와 좌절감은 배움의 일부이고,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실수하거나 이겨내지 못할 것이 두려워 낯선 일에 뛰어들지 못할 때가 많다. 어려운 일과 좌절도 학습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알려 주어야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열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왜 그 원칙이 중요한지 생생하게 입증한 실제 사건을 다양하게 들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챌린저 호를 발사하기 전에 O자 모양의 링이 낮은 온도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우려했던 엔지니어들과 그 말을 무시하고 발사를 감행하면서 빚어진 결과,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 켄멜와이스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마는 수천 명의 여성들을 보면서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렸지만, 의학계가 무시하면서 아까운 목숨이 계속 사라져야 했던 일 등을 통해, 과학과 수학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명확히 짚어낸다. 각 장마다 독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주어지고, 책 맨 뒤에 그 답이 제시된다.

<목차>

- 1장. 과학과 수학은 진실을 이야기한다
 - 2장. 인간은 잘 속는다(직관에 어긋나는 사고)
 - 3장. 가설은 최대한 간단명료해야 한다
 - 4장. 실수와 좌절감은 학습의 일부이고 인생의 한 부분이다
 - 5장. 마음을 활짝 열고 유연하게 사고하라
 - 6장. 건강한 의심을 유지하라
 - 7장. 통계에 속지 마라
 - 8장. 원인과 상관관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 9장. 윤리적인 의사결정
 - 10장. 편견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 해답

<저자 소개>

에드워드 자카로(Edward Zaccaro)는 수학 영재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 영재교육에 관한 주, 전국 단위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저서로는 『Challenge Math』, 『Real World Algebra』 등이 있다.

제목: THIS ORIENT ISLE

가제: 동양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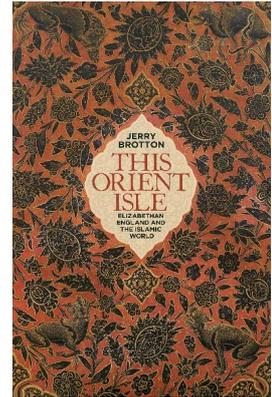
저자: Jerry Brotton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16년 3월 22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역사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과 이슬람 세계의 광범위한 교류와 영향, 색다른 역사의 한 단면

16세기 말경에 아랍의 어느 역사학자가 ‘이사벨 여왕’에 관한 글을 남겼다. 그는 어느 작은 왕국을 통치하는 그녀가 필리페 2세가 이끄는 무적함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매서운 바람’이 도와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했다. 코란에서 알라 신이 구해주는 특별한 민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람’이 현실로 나타난 것만 같았다. 이 일은 알라 신이 이 섬의 여왕 편에 서 있다는 확실한 징후라고 밝히면서, 이 아랍 역사가는 크게 기뻐한다. 그가 이야기한 외국 어느 섬나라 여왕인 이사벨 여왕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다. 당시 해군의 전투력에서 따라올 곳이 없었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는 1588년, 19,000명의 병사가 타고 있는 130척의 배를 영국에 보냈지만 거센 폭풍우로 결국 패하고,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면서 에스파냐가 유럽에서 거머쥔 주도권을 점점 상실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당시 북아프리카와 오스만 제국, 이란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현재의 모로코 남서부 항구도시인 에사우이라부터 옛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스파한까지 여왕이 보낸 스파이와 상인들이 활약한 덕분이었다. 저자는 영국의 다채로운 역사 중에서도 무슬림의 세계, 아랍 지역과 영국이 어떤 관계였는지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절대 단순하지 않은 두 세계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계는 다소 낯설고 충격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로부터 400년 이상 시간이 흐른 현재의 관계와 선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1570년, 로마의 교황은 엘리자베스 1세와의 교류를 단절한다고 명확히 선언한다. 1559년에 여왕이 헨리 8세의 반교황법령을 되살려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우리의 적과 적인 세력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여왕의 원칙은, 당시 가톨릭 국가이던 에스파냐와 전쟁이 끊이지 않던 무슬림 세력과 영국을 하나로 모으는 끈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세계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교류는 그 깊이와 범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옛 터키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고 모로코 왕이 보낸 사절단을 받아들였으며, 모로코 서부 마라케시로 군수품을 보냈다. 1580년대 후반에 이르자 영국의 상인, 외교관, 선원, 공예 장인, 민간 무장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모로코부터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가 스물세 살에 완성한 작품 <템벌레인 대왕>,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타이투스 안드로니카스>와 희곡 <베니스의 상인>은 모두 이 교류에서 나온 결실이었다.

저자는 영국과 무슬림 세계의 긴밀한 관계와 범위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보고, 뜻밖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던 그 당시의 교류가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에 정치적, 상업적, 국내 정세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영국의 문화교류 분야 전문가인 저자를 통해 그 동안 경시되어온 역사의 한 단면을 보면서, 영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의 색다른 풍경을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사절단이 도착하다

1. 튀니스 공격
2. 술탄, 러시아 황제, 이란의 왕(샤)
3. 바르바리 전투
4. 콘스탄티노플의 그 ‘재주 많은 사람’
5. 불경스러운 연합
6. 술타나 이사벨
7. 터키로 고개를 돌린 영국
8. 마호메트의 비둘기
9. 궁전 탈출
10. 셸리 피버
11. 무어인 그 이상

정리하면서

<저자 소개>

제리 브로튼(Jerry Brotton)은 런던 퀸 메리 대학교에서 르네상스 시대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송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저서로는 12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A History of the World in Twelve Maps』와 『Renaissance Bazaar: From the Silk Road to Michelangelo』, 『The Sale of the Late King's Goods: Charles I and his Art Collection』 등이 있다.

제목 : THE STRANGE LAST VOYAGE OF DONALD CROWHURST

가제 : 도널드 크로허스트의 이상한 마지막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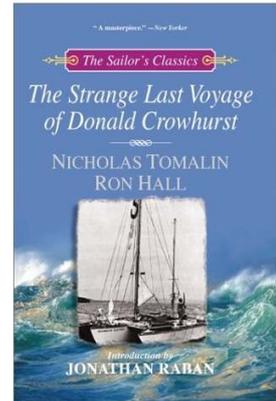
저자 : Nicholas Tomalin, Ron Hall

출판사: Hodder

발행일: 2016년 12월 29일 (재출간)

분량 : 317 페이지

장르 : 역사



허술한 배로 세계일주 항해에 나선 사업가의 수상한 행적, 영화로 개봉 예정인 그의 항해기

1968년 가을, 도널드 크로허스트는 영국을 떠나 세계일주 항해를 시작했다. 한 신문사가 주최한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거머쥘 수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빼먹었던 사업도 호황을 맞게 되리라는 부푼 기대가 그를 망망대해로 이끌었다. 그러나 크로허스트의 야심 찬 항해는 그의 뜻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유로 세상을 놀라게 한다. 「런던타임스」의 두 기자가 크로허스트의 항해일지를 토대로 완성한 이 책은 바다에 나선 후 발생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그가 택한 비정상적인 방법들,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이 모두 담겨 있다. 크로허스트의 항해와 이후의 삶은 현재 영국에서 영화로 제작 중이며 2017년 초에 개봉될 예정이다.

<선데이 골든글로브 세계 항해일주> 대회는 도널드 크로스트에게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였다. 자신이 개발한 선박 운항 장치를 광고하기에 그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큰 상금이 걸린 이 대회 조건은 영국에서 한 방향으로만 대양을 지나고 중간에 육지에 단 한 번도 정박하면 안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있었다. 바다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도 거의 성공하기 힘든 이 일정을 항해 경험도 거의 전무한 크로허스트가 완료한다는 건, 심지어 1등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 힘든 항해를 함께할 보트는 출발 당일까지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직접 설계한 전자 운항장치는 완성되지도 않았고 테스트도 채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크로허스트는 경기에 반드시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후원자를 찾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그는 대회 심사단을 설득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끝냈다. 영국의 모든 언론매체는 크로허스트가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항해를 즐기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위태로운 상황들, 그리고 아내와 네 아이를 뒤로하고, 마침내 바다에 나선 크로허스트는 놀라운 항해 실력을 뽐내며 자신을 믿어준 수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대서양 남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널 때 무선 신호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아껴야 하므로 당분간 교신을 끊겠다고 이야기한다. 11주가 흐르고, 오랜 침묵을 깨며 다시 무선을 시작한 크로허스트는 남미대륙의 끝, 케이프 혼을 지났고 이제 태평양을 지나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알려 왔다. 그가 무사하기만을 고대하던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지어 그 속도대로 항해를 마친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된 상황이었다. 영국에만 돌아오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영웅이 될 일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출항 8개월 후, 비보가 날아든다. 대서양 어딘가에서 표류하던 크로허스트의 배가 발견된 것이다. 배 안에 크로허스트는 없었다. 그의 비극적인 실종은 온갖 추측을 낳았고,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두 권의 항해일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무선이 끊겼던 11주의 시간, 그리고 다시 교신이 시작된 이후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 저자는 그의 일기와 항해일지, 가족, 친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실종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적을 재구성한다. 바다에 나선 지 불과 몇 주 되지 않아 시작된 배 상태에 대한 불안감, 야심만만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이 자명해지자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를 썼던 시간들, 그리고 대서양 남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로 결심한 일, 항로에서 벗어나 경기 규칙을 어긴 과정, 그리고 항해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지 않기 위해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택한 마지막 결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제임스 마쉬가 감독을 맡아 콜린 퍼스, 레이첼 와이즈 주연의 영화 <The Mercy>로 제작 중이며 내년 1월 영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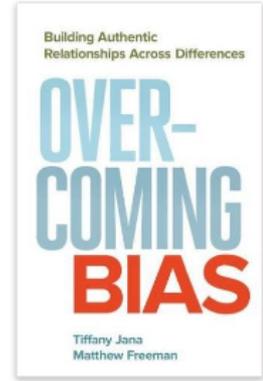
1. 가장 용감했던 소년
2. 위대한 레이스
3. 혁신적인 보트
4. 처녀 항해
5. 틴머스
6. 마지막 편지
7. 항해 후 첫 2주의 기록
8. 전혀 다른 두 가지 진술
9. 조작된 기록
10. 계획 (이하 생략 - 총 20장, 부록 3편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니콜라스 토말린(Nicholas Tomalin)은 「뉴 스테이트맨」의 문학 편집과 「데일리 익스프레스」, 「선데이 타임스」 컬럼리스트로 활동했다.

론 홀(Ron Hall)은 선데이 타임스에서 활약한 저명한 저널리스트이다.

제목 : OVERCOMING BIAS
가제 : 편견에서 벗어나라
저자 : Tiffany Jana, Matthew Freeman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깊이 숨겨진 편견의 뿌리를 찾아 제거하고 통제하여 차이를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다. 드러내는 정도의 차이일 뿐, 대체로 착하고 관찮은 사람도 편견은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편견은 조화롭고 효율적인 협력의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변해가는데 언제까지나 나와 다른 존재를 멀리할 수는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차이를 존중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고 노력해야 할 목표라고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야 차이를 ‘제대로’ 존중하는 것일까? 경영 컨설팅 업체를 함께 운영해온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편견의 뿌리를 먼저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한다. 편견은 모든 인간이 가진 일종의 생존 수단이지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놓고 편견에 가득 찬 말을 내뱉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고 그를 괴짜로 취급한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지?”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문제는 편견은 사고의 범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제약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편견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알게 모르게 밀어내는 근간에는 깊은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 두 저자는 건강하고 진실된 인간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편견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연습과 재미 있는 게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고 패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특권 의식과 왜곡된 선호도는 태어나면서 접한 환경과 인간관계 등 수많은 요소로 형성된다.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혹은 다양한 이유에서 편견 없이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다면 지나온 삶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빚어져 단단한 돌맹이로 생각에 자리 잡은 편견을 찾아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인 수준 전반에 걸친 은근한 편견의 시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실된 관계가 형성된다.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인 유리 장벽을 깨뜨린

후에 찾아오는 삶의 풍요로움은 그 이전의 삶과 비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된 두 저자는 생생한 실제 사례들과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행동을 예로 들며 개개인의 머릿속에 자리잡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나 문화,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편견을 찾아내고,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나는 안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편견이 심한 걸까?

1장. 편견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2장. 나부터 시작하자

3장. 그룹의 안쪽, 그리고 바깥쪽

4장. 특권의식(그리고 자아)을 조사하라

5장. 살펴보고 확대하라

6장. 추측하지 말고 직접 질문하라

7장.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자

결론

<저자 소개>

티파니 자나(Tiffany Jana)는 경영 컨설팅 업체 ‘TMI Consulting’의 창립자이자 CEO로, 2013년 「Diversity Journal」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으로 선정됐다.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는 ‘미국 여성 사업가 협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기업가상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매튜 프리먼(Matthew Freeman)은 ‘TMI Consulting’의 공동 창업자이자 선임 컨설턴트로 국립보건원, 연방준비은행, 미국 의회 등과 함께 일해왔다.